

오스코텍, 골다공증 치료논문 “화제”

뼈전문 신약 개발기업 오스코텍이 2008년 미국골대사학회(ASBMR; American Society for Bone & Mineral Research) 연차 학술회의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OCT-1547과 관절염 치료제 천연물 의약품 후보 물질인 BT-201에 대한 2편의 논문을 Poster로 발표해 큰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.

Eli Lilly, Pfizer 등 다국적 제약기업과 Amgen 등 바이오기업들은 OCT-1547의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 기작과 임상시험 일정, 기술이전 계획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, 앞으로 기술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경청한 국내외 과학자들은 OCT-1547의 작용기작이 다른 후보물질에 비해 참신하고 흥미롭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.

학술회의에는 전세계적으로 6000명 이상의 뼈질환 및 뼈생물학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및 연구자들이 참가했으며,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바이오텍,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.

Amgen은 항체치료제 후보물질인 Denosumab의 임상3상 시험결과를, Merck와 Wyeth는 개발하고 있는 후보물질의 개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.

또 대웅제약에 기술이전된 BT-201은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효능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 미국, 일본, 중국, 유럽 등의 해외 제약사의 관심을 끌었으며 앞으로 해외 제약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의 계기를 마련했다.

<화학저널 2008/09/25>